

여주시, 아동·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박차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준비 2023년까지 인증 목표 추진 아동보호팀 신설, 쉼터 운영

여주시(시장 권오봉)가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 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

·참정)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10대 기본원칙과 46개 항목을 충족한 도시에 대해 UN 상설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시는 202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니세프, 유관기관 간 MOU를 체결해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하고 하반기는 계획단계로 우리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평가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

역’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 전담 공무원 및 아동전담요원을 배치해 촘촘한 아동복지를 추진하며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운영한다.

2022년은 시행단계로 전 부서 대상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및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2023년 하반기에 인증 신청을 한다는 목표다.

시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아동급식과 아동수당에 173억 3000만 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805명에게 보건위생물

품 7000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위탁아동 95명에게 양육보조금, 대학진학금, 상해보험 가입 등 2억 6000만 원을 입학 아동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여수=김용화 기자 jijacecom@metroseoul.co.kr

동네방네



광양만상공인회는 코로나19 극복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광양만상공인회 이웃에 쌀 500kg 기탁

광양시 중마동은 지난 5일 광양만상공인회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4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50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양만상공인회는 9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쌀 50포(10kg)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마련했다.

후원물품은 조손가정, 독거노인, 한부모, 다자녀 등 취약계층 50세대에 중마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직접 비대면으로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희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됐으며 “올해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광양=김용화 기자



강서구에 들어설 예정인 부산형 일자리산업단지의 조감도. /부산시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순항

공정율 35%... 올 준공 목표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일원에 조성 중인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기반조성을 포함한 전체 공정율이 35%를 넘어선 가운데 금년 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상반기에 핵심시설인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온실을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실증지원센터와 연계시설인 청년농촌보급자리 등이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보육센터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52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최신 스마트농업 교육으로 창업농을 육성하면서 스마트팜 기자재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화와

검·인증을 위한 실증단지에는 19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히는 등 스마트팜 관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상주시는 2021년 임대형스마트팜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4ha의 임대형 스마트 온실을 6ha로 확대해 건립한다. 이곳에서는 청년보육센터의 기수별 보육생 12명에게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해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2021년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과 함께 운영 전담 조직 정비, 조례 제정 및 국비 운영비 확보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준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상주=김홍기 기자 g12136@

미래차 부품단지 최종신청 ‘부산형 일자리’ 창출 올인

코렌스EM 등 20여개 기업 유치 신청서에 일자리 이행계획 등 담아

팀(TF)을 꾸려 공모 신청을 준비해왔고 관련 국비 사업 유치에도 공을 들여왔다.

현재 동남권은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산업구조가 내연기관 차량에 편중돼 미래차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한편, 코렌스EM은 독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공동으로 전기차 구동 유닛 기술을 개발해 양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구동 유닛 생산·연구시설을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4월부터 시제품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차 구동 유닛은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ECU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배터리와 함께 미래차 핵심부품에 속한다.

해당 제품은 일본·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며 900여 개의 부품이 조합되는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동 유닛은 기술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코렌스EM은 영구자석(희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WRSM 모터(권선계자형) 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산화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화순 동면 가로마을 벽화그리기.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

22일까지 모집... 24곳에 1.2억 지원

화순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올해 24개 마을공동체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발전 단계별로 ‘씨앗(공부) → 새싹(기획) → 열매(실행)’로 나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라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마을 유래·특성 등 자원조사·발굴 ▲마을 계획수립과 주민교육 ▲마을 특성에 맞는 브랜드사업 등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규모와 참여 실적에 따라 씨앗 단계는 250~500만 원, 새싹단계는 800만원, 열매단계는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22일까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1차 심사 후 전라남도 최종 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 마을공동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ksd1008@

농어민 공익수당 조건 개선 전남도, 올 12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식품위생 향상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부산시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용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동일한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991년 설치됐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총당이며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용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8억 4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12억 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용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부산=허의원 기자